



남원시, 민관 협력 복지 거버넌스 출범

남원시는 1일, 제11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촉식을 개최, 이날 행사에는 대표협의체 위원 26명과 실무협의체 위원 30명이 참석해 민관 협력 복지 거버넌스의 출범을 공식화했다.

남원시는 이번 위촉식을 통해 기관·단체·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복지 증진과 복지안정망을 강화,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의 의지를 다졌다.

또한, 위원들과의 의견 교환을 통해 실질적인 민관 협치 모델을 구현,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최경식 시장은 "지역사회 보장 증진을 위해 중책을 맡아 주신 협의체 위원들께 감사드리며, 각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 복지의 중심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시, 6·25 참전용사 유족 화랑무공훈장 전수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1일, 6·25 전쟁에 참전해 무공을 세운 故조은동 병장 유족(조카 조윤철)에게 국방부장관을 대신해 화랑무공훈장과 훈장증서를 전수했다고 밝혔다.

故 조은동 병장은 6·25 전쟁 당시 육군 제5사단 35연대 소속 분대장으로서 1951년 7월 2일부터 1952년 7월 18일까지 강원도 고성지구 전투에 참여해 탁월한 전공을 세웠다. 이에 따라 1952년 9월 1일과 1954년 10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화랑무공훈장 수여가 결정됐으나, 당시 치열한 전투 상황으로 인해 실물 훈장과 증서를 전달받지 못한 채 1952년 전사했다. /김제=박노태 기자



남원 죽항동, 위기 어르신 발굴 긴급 지원

남원시 죽항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임점숙)는 1일 1가구 소동행진 추진 과정에서 배우자의 폭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을 발굴해 긴급 지원에 나섰다.

대상 어르신은 최근 낙상으로 허리가 골절되어 병원에 입원 중이며, 배우자의 음주 문제와 반복적인 폭력으로 심리적·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죽항동은 남원사회복지관과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에 신고 및 상담을 의뢰해 대상자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소방서, 2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동참

무주소방서가 1일 무주군에 고향사랑기부금 1,150만 원을 기탁했다. 기부금은 무주소방서 직원 110명이 뜻을 모은 것으로 지난해(750만 원)에 이어 2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김장수 서장은 "무주를 아끼고 지키겠다는 소방서 직원들 모두의 마음을 담았다"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큰 사랑이 돼서 무주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또한 "365일 각종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무주군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군민에게 언제든 따뜻하고 믿음직한 119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정읍 농민들, 화합·자긍심 다졌다

정읍시농민회 창립 36주년 기념식... 농업인 단체·농민회 회원들 참석

정읍시농민회 창립 36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행사가 지난달 30일 신태인 실내체육관에서 성대히 열렸다. 이번 기념식은 농업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기고 회원들의 화합과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학수 시장, 시·도의회 의원, 원안택 전농 전북도연맹 의장, 농업인 단체 관계자와 농민회 회원들이 함께하며 자리를 빛냈다. 기념식은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대회사, 격려사, 연대사와 결의문 낭독이 이어지며 농업인들의 결속과 의지를 다지는 시간으로 꾸러졌다.



이 행정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농업은 우리의 미래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힘으로,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특히 오후에 열린 가족 한마당 대회에서는 체육 활동과 공연이 펼쳐지며 회원들 간 소통과 교류가 활발히 이뤄졌다. 농민들은 함께 어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농업인으로로서의 자부심을 다시금 확인했다.

이학수 시장은 "농업인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완주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성평등 가치 실천 의지 다져

완주군이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1일 완주가족문화교육원 가족홀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 사회, 모두가 행복한 완주'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번 행사에는 여성단체 회원과 내빈 등 250여 명이 참석해 성평등의 가치와 실천 의지를 다졌다.

양성평등주간은 실질적인 남녀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주간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인권 선언문인 '여권보통' 발표된 9월 1일에 맞춰 매년 9월 1일부터 7일까지 운영되고 있다. 이날 기념식은 특강(양성평등을 위한 생각, 말, 행동), 식전문화공연, 유공자 표창, 개회사, 축사, 퍼포먼스 순으로



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 속에서 양성 간의 균형과 조화를 일상 속에서 실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라며 "차별과 폭력을 없애고 서로를 배려하며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양성평등주간을 통해 남녀가 서로 존중하고 미래행복도시 완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진행되었으며, 단체 홍보부스를 마련해 소비자 이동상담 및 수지침 봉사 등의 부대행사도 진행했다. 재미와 완주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은 "서

전평신협, 신협사회공헌재단에 500만원 기부금 전달

전평신협은 최근, 전평신협 본점(전주시 덕진구 소재)에서 신협사회공헌재단에 기부금 500만원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부금 전달식에는 신협중앙회 강연수 전북지역본부장과 전평신협 김병화 이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 임직원 6명이 참여했다. 전평신협은 2017년부터 꾸준히 재단에 기부금을 전달해왔으며, 2023년에는 전북신협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추진한 '1신협 1아동 결연사업'에 동참해 정기후원을 한 바 있다. 전평신협 이번 기부금 500만 원 전달로 전평신협은 재단누적기부금 8,580,000원을 달성하게 된다.

전평신협의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덕진구·완주군 내 단위 신협 중에서도 손에 꼽는다. 위기가정 및 복지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눈누라에 사랑'을 캠페인'을 올해 4회째 동참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가정의 주거환경 개선을 돕는 '신협 행복한집 프로젝트'를 전주시·완주군 일대에서 3년째 실천해왔다.

특히 지역아동센터와 협업해 아이들의 금융·경제지식을 배양하는 '신협 어바니멘토링 프로그램' 부문에서 올해 4월 '우수활동 신협'으로 선정돼 중앙화장표창을 수여받은 바



남원 도동동, 야외근로자 위한 에어컨 설치

남원시 도동동 행정복지센터는 관내 무더위 쉼터 24개소를 순회 점검, 폭염의 기승으로 보호대책 마련으로 야외근로자들을 위한 선풍기 에어컨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도동동은 "2025년 폭염대비 취약계층 집중 돌봄 기간" 동안, 141가구를 방문하고 무더위 쉼터 24개소를 방문, 1일 1가구 소동행진과 연계하여 운영질환 예방을 위한 방문 건강 상담을 실시하며, 야외근로자, 노인일자리 등 폭염대응 생활요령 안내를 실시하고 에어컨 설비점검, 냉장고 설비점검 등을 실시하며 기부받은 아이스 수박, '사랑의 얼음생수'도 함께 전달했다.

지난 7월 30일 업무협약을 한 박종산 선풍기 냉난방시스템 대표는 "미약하나마 지원한 에어컨으로 잠시나마 시원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행복을 드리고 싶었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있다. 김병화 이사장은 "우리 동네이웃과 더불어 사는 것을 넘어, 신협의 이념적 가치가 전국으로 퍼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기부를 결정했다"며, "전평신협은 앞으로도 신협사회공헌재단과 함께 행복을 그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고창초 합창단, 전북대표 전국 소방동요대회 출전

고창초등학교합창단이 오는 18일 청원에서 열리는 제26회 전국 119소방동요대회에 전북특별자치도 대표로 출전한다. 지난 6월 열린 전북 소방동요대회에서 초등부 1위를 차지한 고창초등학교는 화성과 지도교사의 꾸준한 노력으로 전국 무대에 오르게 됐다. 합창단은 현재 연습을 이어가며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창소방서는 학생들의 연습 과정에 함께하며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윤기열 대응예방과장은 "학생들의 도전이 지역의 자긍심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국 119소방동요대회는 소방청이 주최하고 한국소방안전원이 주관하는 행사로, 전국 시·도 예선을 거쳐 선발된 유치원·초등부 합창단이 참가한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시,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실적 달성 컨설팅

남원시가 중증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2025년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실적 달성 컨설팅을 지난달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었다.

이번 컨설팅은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에 근거해 추진되었으며, 공공기관의 의무 구매비율 준수를 넘어 실질적인 성과 제고를 목표로 했다고, 이에 따라 실적이 저조한 17개 부서의 회계담당자가 직접 참여해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생산물판매시설 관계자로부터 맞춤형 컨설팅을 받았다.

컨설팅에서는 △정량지표 목표 달성을 위한 실적 관리 방안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 전략 등과 실제 구매가 가능한 물품을 안내했다.

남원시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단순한 교육을 넘어 실제 구매를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천적 전략을 마련,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 보장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농협은행 전북, 신규직원 마케팅 교육·나눔 실천

농협은행 전북본부는 최근 신규직원 28명을 대상으로 마케팅 레벨업 교육을 실시하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교육은 금융사고 예방교육과 현장 중심의 마케팅 실무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신규직원들이 직접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을 위한 600만원 상당의 피아니노 키트를 제작하여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해당 키트에는 여성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위생용품과 기초화장품 꾸러미, 신규직원들의 희망메세지가 담겼으며 세이브더칠드런을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남원소방서, 소방발전위원회 간담회

남원소방서는 1일 소방발전위원회(위원장 김학경)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내 재난 대응력 강화와 소방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취약 계층 화재 예방대책 △19구급 이송체계 개선 △소방인프라 확충 방안 △소방발전위원회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 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지역 맞춤형 소방정책 수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활발히 교환했다.

김학경 위원회 위원장은 "남원소방서와의 협력은 지역 안전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부안 동진면 지사함, '자원에 숨겨진, 생활용 공예展'

부안군 동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전종각)는 오는 6일 고마지구 농촌테마파크에서 열리는 동진면민의 날 행사에서 주민들과 함께 자원순환 실천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 확산을 목표로 '자원에 숨겨진, 생활용 공예展'을 개최한다.

이 행사로 휴먼앤드림에서 페이퍼, 페트병 등 일상에서 버려지는 자원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공예 작품 10여점을 선보인다는 것.

행사 현장에서는 투명 페트병 수거 캠페인이 함께 진행되며, 회수된 투명 페트병은 무인회수기를 통해 포인트로 적립되며 조성된 적립금은 지역 복지기금으로 환원된다.

특히 주민들이 환경보호와 나눔을 동시에 실천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확산시키고 나아가 주민참여형 ESG 실천 모델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정에 동진면장은 "폐자원을 활용한 전시와 투명 페트병 회수를 통해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음을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